초등학교 교사의 식생활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 요구도 조사

김주영 · 심기현[†]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전통식생활문화전공

A survey on dietary education needs for implementing dietary education by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s

Joo Young Kim and Ki Hyeon Sim[†]

Department of Traditional Dietary Life Food, Graduate School of Traditional Culture and Art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In this study, data was collected on the dietary life education at elementary schools according to the Food Education Support Act usi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as subjects. A survey was conducted on 258 elementary school teachers at seven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Seoul, Gyeonggi, and Daegu, Korea from April 14-17, 2010. Most teachers reported that dietary life education was very much needed. The appropriate individuals to teach dietary life education were nutrition teachers, charge teachers, and dietary life education tutors, in that order. The most appropriate time to conduct dietary life education was during dietary life-related subject hours, dietary life education hours, food service hours, and discretionary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that order. The most effective materials and methods used for dietary life education were projection materials and dietary life-related special lectures. Efficient dietary life education methods can be used to develop dietary life education programs. Based on these results,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cognize that dietary life education is very much needed and believe that it would be desirable to conduct dietary life education using nutrition teachers in cooperation with other related teachers.

Key words : dietary life education, elementary school teacher

1. 서론

식생활이란 인간의 생명 유지와 신체 활동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일을 말한다. 식생활은 인간이 영위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적이고 중요한 활동으로 이것을 통해 생리적인 욕구의 해소 및 사회·심리적인 욕구까지 충족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상대적인 건강 위험 인

자들이 감소한 반면에 만성질환의 유병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만성질환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식생활을 바르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학령기부터 적극적인 식생활교육이 필요하다(Lee HC 2002, Her ES와 Jung SH 2009).

성장기 아동의 영양은 그 시기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연속되는 청소년기의 건강과 성장 및 일생의 건강에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Lee KA 2003). 아동과 청소년의 영양불량은 심신발달 뿐 아니라 학습능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올바른 영양섭취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형성된 식습관이나 식품에 대한 기호는 성인기에서의 식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일생 동안의 영양 상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일단 형성된 식습관은 쉽게 교정하기 어려우므로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단계적이고 지

[†]Corresponding author: Ki Hyeon Sim, Department of Traditional Dietary Life Food, Graduate School of Traditional Culture and Art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el: +82-2-2077-7475
Fax: +82-2-2077-7140
E-mail: santaro@sookmyung.ac.kr

속적인 식생활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고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생활교육이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부모의 바쁜 사회생활로 인해 생활 전반에 있어 가정에서의 교육이 크게 저하되었고 자녀의 식습관이나 식사예절에 대해 지도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초등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식생활교육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Yeom CA 등 1995). 식생활교육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동이 실생활에 적용하여 잘못된 식습관이 올바르게 변화될 수 있도록 실시되어질 때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Paik JJ 1990).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5월 27일 식생활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 11월 28일 시행하여 2010년 4월 5일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환경·건강·배려를 녹색식생활교육의 3대 가치로 설정하여 녹색 식생활을 보급하고, 푸드 마일리지 표시 등을 통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영양중심의 초등학교 영양교육을 개선하여 어린 시절 식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 생활습관병 증가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식생활, 자연과 농식품 생산자에 대한 배려와 감사하는 내용의 식생활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기획재정부 등 2010).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식생활교육은 정규 수업 시간을 할당받지 못하여 일회성의 단기간 영양교육위주로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영양지식은 향상되었으나 식습관의 변화까지는 유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식생활교육이 필요하다(Cho EM과 Kim MR 2008). 그동안 식생활교육에 대한 연구는 초등학교 영양교육 실태, 영양교육 효과, 영양교육 자료 분석,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영양교육 중심의 연구(Suh EN 1998, Ku BJ와 Lee KA 2000, Jin JH 등 2002, Choi EY 2004, Lee KH 등 2005, Jung KA 2007, Kim HJ 2008, Choi YE 2009, Jo MA 등 2009)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영양교육을 포함한 보다 넓은 의미의 식생활교육에 대한 연구는 현 교육과정 하에서 초등학교 5, 6학년에서만 다루어지는 실과과목을 통한 식생활교육에 대한 연구(Jang EJ 2004, Kim SH 2007, Lee ES 2007, Lim HS 2007, Son SN 2008)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통한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사업과 같은 학교 내 식생활교육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식생활교육지원법 이후 실질적인 식생활교육 실태 및 교사들의 교육 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에 따른 초등학교 식생활교육 요구도 조사를 통해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현재 식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 경기, 대구의 7개 초등학교 담임교사와 교과전담교사, 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2010년 4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14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무성익한 작성과 자료로서의 가치가 부족한 42부를 제외한 258(86%)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Suh EN(1998), Lee HC(2002), Lee ES(2007), Jung KA(2007)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작성한 후에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난해하고 미흡한 점을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결혼, 교직 경력, 교사의 담당분야와 같은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과 향후 학교 현장에서 식생활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식생활교육 필요성, 교육 담당자, 교육 시간, 교육 매체, 교육 방법, 효율적인 교육 방안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중 식생활교육 시간, 매체, 방법, 효율적인 교육 방안 등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를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선순위별로 환산 점수를 계산하여 산출하였다. 이때 복수응답에 따른 환산점수는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는 1점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연구목적과 설문내용 및 작성요령에 대해 설명한 후에 조사 대상자들이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3. 통계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version 11.5)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조사결과는 빈도(N), 백분율(%), 평균(Mean), 표준편차(S.D) 등으로 나타내었으며, 다중순위응답의 경우에는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으로 배점하여 종합순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결과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과 교차분석(χ^2 -test),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그룹간의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일원분산분석 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집단 간 차이 규명을 위해 Duncan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		N(%)
Gender	Male	31(12.0)
	Female	227(88.0)
Age	< 30	72(27.9)
	30 - 40	116(45.0)
	≥ 40	70(27.1)
Marital status	Single	94(36.4)
	Married	164(63.6)
Teaching career (years)	< 5	60(23.3)
	5 - 10	103(39.9)
	10 - 20	51(19.8)
	≥ 20	44(17.1)
Teaching grade	1st, 2nd grade	67(26.0)
	3rd, 4th grade	76(29.5)
	5th, 6th grade	67(26.0)
	Other	48(18.6)
Total		258(100.0)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에서 여성 88.0%, 남성 12.0%로 여성이 많았다. 연령별로 30-40세가 45.0%로 가장 많았고, 30세 미만 27.9%, 40대 27.1%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 따라 기혼자 63.6%, 미혼자는 36.4% 조사되었고, 교직경력별로는 5년-10년 미만이 3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5년 미만 23.3%, 10년-20년 미만 19.8%, 20년 이상이 17.1%순으로 나타났다. 담당분야로는 3-4학년 담임교사가 29.5%로 가장 많았고, 1-2학년 담임교사 26.0%, 5-6학년 26.0%, 교과전담교사와 교장, 교감, 방과 후 교사 등을 포함한 기타에 해당하는 교사는 18.6% 순으로 조사되었다.

2. 식생활교육 필요성

초등학교의 식생활교육 필요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초등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84.4%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인 15.6% 보다는 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 대상자 대부분이 초등학교에서 식생활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성별이나 연령, 결혼여부, 교직경력, 담당분야에 따른 식생활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교육 주체에 상관없이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아교육기관 교사에게 식생활교

Table 2. Necessity of dietary lif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Variable		Necessary	Unnecessary	Total	χ^2 (p)
Gender	Male	25(86.2)	4(13.8)	29(100)	.083
	Female	191(84.1)	36(15.9)	227(100)	(.773)
Age	< 30	62(86.1)	10(13.9)	72(100)	4.500 (.105)
	30 - 40	102(87.9)	14(12.1)	116(100)	
	≥ 40	52(76.5)	16(23.5)	68(100)	
Marital status	Single	80(85.1)	14(14.9)	94(100)	.060
	Married	136(84.0)	26(16.0)	162(100)	(.086)
Teaching career (years)	< 5	52(86.7)	8(13.3)	60(100)	1.549 (.671)
	5 - 10	89(86.4)	14(13.6)	103(100)	
	10 - 20	41(80.4)	10(19.6)	51(100)	
	≥ 20	34(81.0)	8(19.0)	42(100)	
Teaching grade	1st, 2nd grade	53(81.5)	12(18.5)	65(100)	6.900 (.075)
	3rd, 4th grade	60(78.9)	16(21.1)	76(100)	
	5th, 6th grade	57(85.1)	10(14.9)	67(100)	
	Other	46(95.8)	2(4.2)	48(100)	
Total		218(84.4)	40(15.6)	258(100)	

Table 3. Proper educator for dietary lif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N(%)

Variable		Nutrition teacher	Charge teacher	Dietary life education tutor	Other teacher	Total	χ^2 (p)
Gender	Male	14(45.2)	4(12.9)	13(41.9)	0(0)	31(100)	19.450** (.001)
	Female	124(54.6)	63(27.8)	28(12.3)	12(5.3)	227(100)	
Age	< 30	39(54.2)	19(26.4)	12(16.7)	2(2.8)	72(100)	7.219 (.513)
	30 - 40	65(56.0)	28(24.1)	19(16.4)	4(3.4)	116(100)	
	≥ 40	34(48.6)	20(28.6)	10(14.3)	6(8.6)	70(100)	
Marital status	Single	48(51.1)	24(25.5)	16(17.0)	6(6.4)	94(100)	3.836 (.429)
	Married	90(54.9)	43(26.2)	25(15.2)	6(3.7)	164(100)	
Teaching career (years)	< 5	25(41.7)	16(26.7)	17(28.3)	2(3.3)	60(100)	28.943** (.004)
	5 - 10	68(66.0)	21(20.4)	12(11.7)	2(1.9)	103(100)	
	10 - 20	23(45.1)	16(31.4)	8(15.7)	4(7.8)	51(100)	
	≥ 20	22(50.0)	14(31.8)	4(9.1)	4(9.1)	44(100)	
Teaching grade	1st, 2nd grade	35(52.2)	18(26.9)	8(11.9)	6(9.0)	67(100)	25.996* (.011)
	3rd, 4th grade	41(53.9)	27(35.5)	6(7.9)	2(2.6)	76(100)	
	5th, 6th grade	33(49.3)	14(20.9)	16(23.9)	4(6.0)	67(100)	
	Other	29(60.4)	8(16.7)	11(22.9)	0(0)	48(100)	
Total		138(53.5)	67(26.0)	41(15.9)	12(4.7)	258(100)	

*p<.05, **p<.01

육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식생활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중 96.4%의 교사가 식생활 교육에 관심이 있다고 하였다(Her ES과 Jung SH 2009). 경기도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식생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61.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Choi MK 등 2010), 대구 지역 중학생들의 경우도 식생활교육이 '필요하다' 41.1%로 '필요하지 않다' 12.6%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나 응답자의 46.3%가 '모르겠다'고 응답을 하여 식생활교육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Cho EM과 Kim MR 2008).

3. 식생활교육 담당자

학교에서 식생활교육을 하는데 적합한 교육 담당자에 대해서는 <Table 3>의 결과와 같이 영양교사가 5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담임교사 26.0%, 식생활교육 외부 전문가 15.9%, 보건교사와 체육교사를 비롯한 기타 교사가 4.7%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식생활교육 외부 전문가에 대한 응답이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났고(p<.01), 교직경력에서는 5년 미만에서 타 경력에 비해 식생활교육 외부 전문가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1). 또한 5년 이상-10년 미만의 교사는 타 경력의 교사에 비해 영양교사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p<.01), 10년 이상 경력의 교사는 10년 미만의 교사에 비해 담임교사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1). 담당분야에 따라서는 5-6학년 담임교사가 다른 교사들에 비해 식생활교육 외부 전문가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3-4학년 담임교사는 다른 교사들에 비해 담임교사가 식생활교육 담당자로 적합하다는 응답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5).

초등학교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식생활교육에 대해 조사한 Shin EK 등 (2006)의 연구에서 교장의 61.9%는 담임교사와 영양교사가 병행하여 식생활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으나 교사, 학생, 학부모는 각각 88.7%, 46.2%, 53.8%가 영양교사가 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Park JA와 Chang KJ 2004)에서도 응답자의 69.8%가 식생활교육의 적임자로 영양교사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Choi MK 등 2010)에서도 전체 학생의 65.2%가 영양교사가 식생활교육에 적임자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식생활교육을 올바르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영양교사에 의한 전문적인 식생활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다른 교사들보다도 식품영양학 전문가인 영양교사를 식생활교육 책임자로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영양교사가 중심이 되어 식생활교육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담임교사를 비롯한 식생활교육과 연관된 모든 교사들의 협력 하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효과적인 식생활교육 시간

가장 효과적인 식생활교육을 실시 시간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식생활관련 교과시간과 식생활교육시간이 각각 2.1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급식시간 2.12점,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시간 1.85점, 방과 후 시간 1.53점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연령에서 30대가 타 연령에 비해 식생활관련교과시간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방과 후 시간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5$). 결혼여부에서는 기혼이 미혼에 비해 급식시간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p<.05$), 교직경력에서는 5년 이상-10년 미만 이 타 경력에 비해 식생활관련교과시간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1$). 또한 식생활교육시간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교직경력이 10년 미만이 10년 이상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p<.05$), 교직경력이 10년 이상의 교사는 10년 미만의 교사에 비해 급식시간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담당분야에서는 저학년 담임교사가 타 분야교사에 비해 방과 후 시간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2009년 개정된 교육과정은 학생의 창의성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고 교육 시간

Table 4. Effective time of dietary life education practice in elementary schools

Mean±SD

Variable		Dietary life-related subject hours	Discretionary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Dietary life education hours	Food service hours	After school time
Gender	Male	2.11±0.74 ¹⁾	2.11±0.96	2.44±0.86	2.00±0.67	1.00±0.00
	Female	2.14±0.73	1.82±0.82	2.09±0.78	2.13±0.89	1.80±0.79
t-value(p)		0.043(.836)	1.96(.163)	3.091(.081)	0.41(.523)	4.952(.044)*
Age	< 30	2.16±0.66 ^{2b}	1.73±0.81	2.19±0.84	2.05±0.86	1.00±0.00
	30 - 40	1.99±0.79 ^a	1.92±0.82	2.19±0.76	2.07±0.90	1.89±0.78
	≥ 40	2.33±0.67 ^b	1.88±0.89	1.83±0.82	2.29±0.80	0
F-value(p)		3.728(.026)*	0.734(.482)	2.062(.131)	1.252(.288)	7.564(.017)*
Marital status	Single	2.16±0.73	1.92±0.82	2.14±0.78	1.93±0.91	1.25±0.46
	Married	2.13±0.74	1.82±0.85	2.13±0.81	2.24±0.82	1.86±0.90
t-value(p)		0.091(.763)	0.533(.467)	0.001(.977)	5.955(.016)*	2.814(.017)*
Teaching career (years)	< 5	2.32±0.69 ^b	1.73±0.81	2.34±0.73 ^a	1.75±0.81 ^c	1.00±0.00
	5 - 10	1.91±0.72 ^a	1.95±0.83	2.19±0.80 ^a	2.02±0.90 ^b	2.00±0.76
	10 - 20	2.33±0.71 ^b	1.64±0.79	1.89±0.80 ^b	2.61±0.69 ^a	0
	≥ 20	2.22±0.72 ^b	1.95±0.90	1.67±0.78 ^b	2.36±0.73 ^a	0
F-value(p)		4.565(.004)**	1.226(.302)	3.403(.019)*	8.435(.000)***	12.133(.004)**
Teaching grade	1st, 2nd grade	2.00±0.73	1.93±0.86	2.02±0.76	2.24±0.88	3.00±0.00 ^c
	3rd, 4th grade	2.26±0.74	1.82±0.78	2.04±0.87	2.18±0.85	1.67±0.52 ^b
	5th, 6th grade	2.02±0.74	1.82±0.91	2.27±0.73	2.17±0.88	1.00±0.00 ^a
	Other	2.33±0.66	1.83±0.80	2.28±0.80	1.82±0.83	1.00±0.00 ^a
F-value(p)		2.469(.063)	0.196(.899)	1.139(.335)	2.068(.106)	17.6(.000)***
Total		2.14±0.73	1.85±0.84	2.14±0.80	2.12±0.87	1.53±0.74

¹⁾ Ranked multiple response(3=1st, 2=2nd, 1=3rd).

* $p<.05$, ** $p<.01$, *** $p<.001$

²⁾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5$).

도 늘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기존의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시간을 2009년 개정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한다면 효과적인 식생활교육을 실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각 영역별로 학생, 학급, 학년,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으므로 각 학교에서는 상황에 맞게 교육영역을 선택하여 식생활교육을 한다면 기존 식생활교육보다는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기 북부 지역의 초등학교 식생활교육에 관한 연구(Min KC 2006)에서 정규 수업 시간에 식생활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간접적인 식생활교육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임교사의 경우 정규수업 시간에 식생활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담임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보편적인 교육 방법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영양교사의 경우 정규수업시간보다는 급식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통해 식생활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영양교사의 경우 과거에 비하여 식생활교육이 영양교사의 고유한 업무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간접적으로라도 식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영양교사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부에서 급식을 지원하는 초등학교의 식생활교육 효과를 살펴 본 Han HY 등(1997)의 연구에서도 간접적인 식생활교육은 정보의 제공이 제한되는 등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므로 식생활관련 교과시간이나 식생활교육 시간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식생활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식생활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담임교사보다는 영양교사가 중심이 되어 식생활교육을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식생활교육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영양교사가 식생활교육을 전담해서 운영 시에는 영양교사의 고유업무인 급식 관리 외에도 식생활교육이 추가되어 업무가 과중해지고 다른 교과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담임교사와의 협력 하에 식생활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5. 효과적인 식생활교육 매체

가장 효과적인 식생활교육 매체에 대한 선호도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영상매체' 2.54점, '입체매체' 1.92점, '전자매체' 1.85점, '인쇄매체' 1.80점, '멀티미디어 자료' 1.73점, '전시 및 게시매체' 1.65점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교직경력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이 타 경력에 비해 '영상매체'가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고($p<.001$),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타 경력에 비해 인쇄매체가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p<.001$). 담당분야에서는 1-2학년 담임교사가 타 분야교사에 비해 '입체매체'가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p<.05$), 3-4학년 담임교사와 기타 분야교사가 타 분야교사에 비해 '인쇄매체'가 효과적이

라는 응답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p<.01$).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멀티미디어자료'가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전시 및 게시매체'가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p<.01$). 연령에서는 40세 이상이 타 연령에 비해 '멀티미디어자료'가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p<.01$), '전시 및 게시매체'가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40세 이상이 타 연령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p<.05$).

경기도 지역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Min KC 등 2006)에서는 인쇄매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35.1%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식생활교육 매체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구시 중학생들의 식생활교육에 대한 연구(Cho EM과 Kim MR 2008)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5.6%가 '영화 등의 영상매체'를 가장 선호하는 교육매체로 응답하였고, 29.0%가 'TV, 라디오, 컴퓨터 등의 전자매체', 10.7%가 '인형, 모형, 역할극을 이용한 수업', 3.7%가 '그림, 사진, 게시판', 0.9%가 '통신문, 포스터, 팸플릿' 등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회가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 교육매체도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과거에 많이 사용하였던 인쇄매체보다 영상매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과거에 수업 자료로 많이 활용하였던 슬라이드, OHP, 환등기 등을 보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현대사회가 빠르게 디지털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인쇄 매체는 시청각매체로 발전하였고, 통신과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TV, 라디오, 컴퓨터와 같은 전자매체와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 주체인 교사와 학생 모두 시각적 요소를 전달 매체로 사용하는 이들 매체를 선호함에 따라 효율적인 식생활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나 학생 모두가 선호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매체 개발과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무엇보다도 식생활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참여도와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 매체를 사용하여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점인데, 교육매체는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와 실천 의지를 보조하는 수단이 되므로 다양한 교육매체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겠다(Kim JY과 Sim KH 2011). 최근에는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기존의 아날로그형 교육 매체에서 빠르게 디지털 매체로 대체되어 가면서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는 혼합 형태의 새로운 교육 매체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Her ES와 Jung SH 2009).

6. 효과적인 식생활교육 방법

초등학교에서 가장 효과적인 식생활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Table 6>과 같다. '식생활관련특강' 2.24점, '영양상담실 운영' 2.14점, '농업활동' 2.11점, '조리실습' 2.05점, '방송교육' 2.00점, '비만캠프' 1.96점, '인터넷' 1.85점, '가정통신문' 1.81점, '게시판' 1.80점, '급식신문' 1.78점, '주간 유인물' 1.37점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5. Effective educational materials of dietary lif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Mean±SD

Variable		Printing materials	Exhibition/bulletin materials	Solid materials	Projection materials	Electronic materials	Multimedia materials
Gender	Male	1.78±0.83 ¹⁾	1.15±0.38	1.63±0.89	2.68±0.67	2.07±0.62	2.23±0.61
	Female	1.80±0.91	1.77±0.76	1.98±0.93	2.53±0.69	1.83±0.67	1.63±0.76
t-value(p)		.005(.944)	8.024(.006)**	1.973(.163)	.916(.339)	1.717(.192)	11.869(.001)**
Age	< 30	1.74±0.77	1.67±0.492 ^a	1.71±0.86	2.59±0.67	1.70±0.64	1.98±0.83b
	30 - 40	1.95±0.96	1.39±0.72 ^a	2.11±1.02	2.43±0.71	1.90±0.74	1.76±0.75b
	≥ 40	1.50±0.89	2.00±0.76 ^b	1.85±0.78	2.68±0.65	1.94±0.53	1.41±0.61a
F-value(p)		1.597(.208)	4.998(.010)*	1.870(.159)	2.846(.060)	1.708(.185)	5.327(.006)**
Marital status	Single	2.00±0.92	1.33±0.49	2.05±1.07	2.51±0.71	1.71±0.71	1.98±0.80
	Married	1.64±0.85	1.77±0.79	1.84±0.81	2.56±0.68	1.92±0.63	1.58±0.71
t-value(p)		3.659(.059)	4.733(.033)*	1.275(.262)	.248(.619)	3.230(.074)	8.908(.003)**
Teaching career (years)	< 5	2.00±0.71 ^b	1.36±0.50	1.77±1.21	2.74±0.53 ^b	1.64±0.65	1.86±0.79 ^b
	5 - 10	2.06±0.98 ^b	1.50±0.62	2.02±0.83	2.32±0.74 ^a	1.92±0.76	1.82±0.88 ^b
	10 - 20	1.00±0.00 ^a	2.14±0.86	1.71±0.85	2.57±0.71 ^b	2.09±0.51	1.85±0.67 ^b
	≥ 20	1.67±0.98 ^b	1.75±0.89	2.14±0.66	2.76±0.53 ^b	1.75±0.44	1.31±0.47 ^a
F-value(p)		6.916(.000)***	3.486(.021)	.989(.401)	6.364(.000)***	2.589(.055)	3.581(.016)*
Teaching grade	1st, 2nd grade	1.38±0.50 ^a	1.43±0.76 ^a	2.36±1.06 ^a	2.52±0.72	1.71±0.64	1.79±0.82
	3rd, 4th grade	2.13±1.11 ^b	2.00±0.62 ^b	1.60±0.81 ^b	2.41±0.75	2.00±0.64	1.69±0.78
	5th, 6th grade	1.54±0.76 ^a	1.44±0.70 ^a	1.90±0.70 ^b	2.67±0.63	1.86±0.65	1.74±0.72
	Other	2.00±0.71 ^b	1.55±0.82 ^a	1.83±0.92 ^b	2.58±0.60	1.84±0.75	1.72±0.79
F-value(p)		3.988(.010)**	2.832(.046)*	3.606(.016)*	1.627(.184)	1.320(.270)	.094(.963)
Total		1.80±0.89	1.65±0.74	1.92±0.93	2.54±0.69	1.85±0.66	1.73±0.77

¹⁾ Ranked multiple response(3=1st, 2=2nd, 1=3rd).

*p<.05, **p<.01, ***p<.00

²⁾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5).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결혼여부에서 미혼이 기혼에 비해 '조리실습'이 효과적인 식생활교육방법이라는 응답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p<.001), 교직경력에서는 5년-10년 미만과 20년 이상에서 타 경력에 비해 '식생활관련특강'이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라는 응답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p<.01), 5년 미만과 10년-20년 미만에서는 타 경력에 비해 '영양상담실 운영'이 효과적인 식생활교육방법이라는 응답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p<.05). 담당분야에서는 3-4학년 담임교사와 기타 분야교사가 타 분야교사에 비해 '영양상담실 운영'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p<.01). 결혼여부에서는 미혼이 기혼에 비해 '조리실습'이 효과적인 식생활교육 방법이라는 응답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p<.001).

경기 북부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Min KC 2006)에서 주로 이용하는 식생활교육 방법은 가정통신문이 39%, 게시판이나 포스터가 22%로 소극적인 방법이 많았으며, 경남지역과 울산지역 초등학교 대상으로 한 연구(Yoon HS와 Lee KH 2001)에서도 가정통신문이 80.8%, 게시판이나 포스터

가 16.4%로 조사되어 식생활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러한 방법이 가장 손쉬운 식생활교육의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영양교사도 13.4%로 조사되어 인터넷을 활용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사들이 식생활교육에 있어서 강의식 수업이나 자료 전달과 같은 손쉬운 형태의 교육 방법을 선호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이러한 교육 방법은 학습자가 피동적으로 되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식생활교육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식생활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식 수업보다는 조리실습이나 게임, 인형극, 역할극 등과 같은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식품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식행동 변화까지 유도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Jung LH와 Oh SH 2005, Her ES와 Jung SH 2009).

Table 6. Effective methods of dietary lif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Mean±SD

Variable		Special Lecture for dietary education	Actual cooking practice	Running nutrition counseling center	Camping program for overweight people	Rural activity	Broadcasting education	Using home correspondence	Using internet	Making a newspaper of meal service	Weekly reading material	Using bulletin
Gender	Male	2.27±1.01 ¹⁾	2.08±0.95	2.31±0.75	2.11±0.93	2.25±0.46	2.00±0.00	2.00±0.00	1.43±0.53	1.89±1.05	1.56±0.53	0
	Female	2.23±0.98	2.05±0.74	2.11±0.83	1.94±0.91	2.09±0.68	2.00±0.69	1.79±0.82	1.94±0.56	1.71±0.73	1.20±0.42	1.80±1.03
t-value(p)		.017(.896)	.015(.904)	.666(.417)	.288(.593)	.406(.526)	0(1)	.251(.619)	.749(.036)*	.223(.642)	2.663(.121)	2.43(.122)
Age	< 30	2.05±0.98	2.25±0.77	2.46±0.52	2.22±0.85	2.18±0.64	2.00±0.71	2.00±0.00	1.33±0.52	2.00±0.00	1.20±0.42 ^b	1.00±0.00
	30 - 40	2.25±0.91	2.02±0.77	2.06±0.85	1.82±0.90	2.00±0.72	1.91±0.53	2.00±0.97	2.00±0.00	1.46±0.78	1.71±0.49 ^a	2.33±1.03
	≥ 40	2.41±1.05	1.78±0.65	2.14±0.86	1.88±0.96	2.13±0.62	2.08±0.78	1.64±0.73	1.88±0.81	2.25±0.89	1.00±0.00 ^b	1.00±0.00
F-value(p)		1.237(.294)	2.508(.086)	1.295(.280)	1.405(.252)	.53(.591)	.378(.687)	1.327(.275)	3.238(.051)	2.500(.107)	3.678(.048)*	2.800(.128)
Marital status	Single	2.13±0.93	2.40±0.66	2.32±0.72	1.97±0.91	2.24±0.65	2.10±0.70	2.00±0.00	1.40±0.52	1.50±0.53	1.14±0.36	2.00±1.15
	Married	2.30±1.00	1.75±0.72	2.07±0.84	1.95±0.91	2.00±0.65	1.95±0.66	1.78±0.84	2.00±0.53	1.93±0.96	2.00±0.00	1.67±1.03
t-value(p)		.855(.357)	24.257(.000)***	1.489(.226)	.003(0.960)	2.371(.128)	.629(.431)	0.394(.533)	9.524(.004)*	1.378(.254)	26.842(.000)***	.229(.645)
Teaching career (years)	< 5	1.86±0.95 ^{2a}	2.34±0.65	2.58±0.51 ^b	2.41±0.87 ^b	2.27±0.63	2.00±0.71	2.00±0.00	1.71±0.49	1.29±0.49 [†]	1.20±0.42 ^a	3.00±0.00
	5 - 10	2.60±0.74 ^b	1.94±0.83	1.88±0.77 ^a	1.97±0.85 ^b	2.00±0.69	2.10±0.72	1.63±0.72	1.80±0.42	1.75±0.89 [†]	1.50±0.58 ^a	1.00±0.00
	10 - 20	1.92±0.88 ^a	2.00±0.79	2.47±0.84 ^b	1.31±0.75 ^a	2.33±0.52	2.00±0.44	2.14±1.03	2.00±0.00	1.00±0.00 [†]	2.00±0.00 ^b	1.00±0.00
	≥ 20	2.55±1.18 ^b	1.80±0.42	2.00±0.89 ^a	2.00±0.94 ^b	2.00±0.67	1.83±0.94	1.70±0.66	1.86±0.86	2.67±0.52 ^b	1.00±0.00 ^a	1.00±0.00
F-value(p)		5.859(.001)**	2.402(.072)	4.205(.008)*	4.161(.009)*	1.105(.353)	.382(.766)	1.301(.285)	.306(.821)	5.865(.005)*	3.502(.042)*	-. ³⁾
Teaching grade	1st, 2nd grade	2.19±0.97	2.20±0.87	1.65±0.49 ^a	2.04±0.88	1.89±0.76	2.13±0.62	1.89±0.76	2.14±0.66 ^b	2.00±1.15	0	1.00±0.00
	3rd, 4th grade	2.35±0.82	1.83±0.82	2.33±0.83 ^b	1.48±0.81	2.11±0.57	2.14±0.76	1.80±0.77	1.50±0.53 ^a	1.80±0.79	2.00±0.00 ^b	1.00±0.00
	5th, 6th grade	2.29±1.19	2.11±0.76	1.94±0.90 ^a	2.22±0.81	2.36±0.49	1.80±0.42	1.67±0.98	1.67±0.49 ^a	2.00±0.00	1.20±0.42 ^a	3.00±0.00
	Other	2.04±0.93	2.03±0.61	2.50±0.71 ^b	2.27±1.01	2.00±0.78	1.56±0.53	2.00±0.00	2.00±0.00 ^b	1.57±0.98	1.00±0.00 ^a	3.00±0.00
F-value(p)		.523(.667)	1.058(.370)	4.700(.005)**	3.301(.025)	1.978(.125)	2.359(.081)	.219(.883)	3.03(.042)*	.248(.862)	14.105(.00)**	-
Total		2.24±0.98	2.05±0.76	2.14±0.81	1.96±0.90	2.11±0.66	2.00±0.67	1.81±0.79	1.85±0.59	1.78±0.85	1.37±0.50	1.80±1.03

¹⁾ Ranked multiple response(3=1st, 2=2nd, 1=3rd).

*p<.05, **p<.01, ***p<.001

²⁾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5).³⁾ The expected frequency of the cell was less than 1.

7. 식생활교육 활성 방안

초등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활성 방안에 대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2.35점, '식생활교육 전담교사제 운영' 2.23점, '식생활교육과정안 개발' 1.92점, '시설과 기자재 구비' 1.87점,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1.82점, '독립교과 운영' 1.69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유의적으로 높게 응답하였으며, 연령에서는 30세 미만이 30세 이상에 비해 '식생활교육 전담교사 교육'을 유의적으로 높게 응답하였고,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와 상호연계'는 30세 이상이 30세 미만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응답하였다(p<.05). 결혼여부에서는 미혼이 기혼에 비해 '시설과 기자재 구비'를 유의적으로 높게 응답하였으며, '식생활교육과정안 개발'에서는 기혼이 미혼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응답하였다(p<.05). 담당분야에서는 5-6학년담임교사가 타 분야 교사에 비해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유의적으로 높게 응답하였으며, '식생활교육과정안 개발'은 3-6학년담임교사가 1-2학년담임교사와 기타분야의 교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응답하였다(p<.05). 이러한 결과는 상당수의 교사들이 식생활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교육기관의 인식과 지원 부족 등의 이유로 식생활교육 교육 시간이나 교재가 구비되어 있지 못하여 효율적인 식생활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일반적으로 영양교사가 교육하고 있는 경우는 급식시간 외에 따로 시간을 내어 교육하기가 매우 어렵고 다른 업무가 과중하여 식생활교육을 하기 위한 시간을 따로 할애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식생활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를 비롯한 식생활교육 관련 교과 전담 교사가 영양교사와 협력하여 식생활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식생활교육을 하기 위한 교재와 교구가 미비하여 효율적인 식생활교육을 하지 못하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교사들의 교사용 지침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효과적인 식생활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용 지침서의 개발도 필요하다(Jung LH와 Oh SH 2005). 따라서 식생활교육지침법 시행에 따른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Table 7. Improvement measures of dietary lif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Mean±SD

Variable		Development program for dietary life education	Prepara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and equipment	Teacher training in dietary life education	Development instruction-learning planning for dietary life education	Separate subject for dietary life education	Employment of full-time instructor for dietary life education	Link with parents, school and community
Gender	Male	2.64±0.62 ¹⁾	1.91±0.87	1.45±0.52	1.86±0.90	0	2.00±0.71	1.44±0.51
	Female	2.30±0.76	1.86±0.72	1.83±0.71	1.92±0.82	1.69±0.74	2.26±0.88	1.88±0.92
t-value(p)		5.176(.024) [*]	.079(.779)	2.827(.096)	.038(.845)	0(1)	.713(.401)	3.531(.063)
Age	< 30	2.37±0.66	1.94±0.82	2.14±0.66 ^{2b)}	1.89±0.87	1.50±0.58	2.13±0.85	1.40±0.76 ^{a)}
	30 - 40	2.28±0.81	1.74±0.70	1.82±0.75 ^{a)}	2.22±0.81	1.80±0.77	2.27±0.87	1.85±0.85 ^{b)}
	≥ 40	2.44±0.74	2.00±0.68	1.50±0.51 ^{a)}	1.67±0.69	1.00±0.00	2.27±0.88	2.06±0.92 ^{b)}
F-value(p)		.890(.412)	1.731(.181)	4.135(.019) [*]	2.162(.123)	1.262(.302)	.242(.786)	4.38(.015) [*]
Marital status	Single	2.25±0.72	2.02±0.75	2.00±0.72	1.71±0.79	1.60±0.84	2.03±0.91	1.94±1.01
	Married	2.40±0.76	1.75±0.72	1.70±0.68	2.11±0.82	1.75±0.68	2.33±0.82	1.76±0.82
t-value(p)		1.949(.164)	4.570(.034) [*]	3.199(.077)	4.314(.042) [*]	.248(.623)	2.315(.132)	.983(.324)
Teaching career (years)	< 5	2.35±0.74	1.82±0.79	2.43±0.51 ^{b)}	1.93±0.78	2.00±1.15	1.94±0.87	1.58±0.84
	5 - 10	2.20±0.80	1.89±0.75	1.77±0.71 ^{a)}	2.00±0.93	1.70±0.66	2.42±0.79	1.68±0.85
	10 - 20	2.51±0.60	1.92±0.84	1.62±0.67 ^{a)}	1.83±0.94	0	2.00±0.89	2.04±0.85
	≥ 20	2.47±0.76	1.85±0.54	1.43±0.51 ^{a)}	1.75±0.46	1.00±0.00	2.13±0.96	2.00±0.98
F-value(p)		2.139(.096)	.118(.949)	6.582(.000) ^{***}	.225(.878)	1.262(.302)	1.608(.194)	1.678(.176)
Teaching grade	1st, 2nd grade	2.51±0.67 ^{b)}	1.86±0.64	1.80±0.58	1.33±0.49 ^{a)}	1.00±0.00	2.18±0.96	1.78±0.87
	3rd, 4th grade	2.35±0.71 ^{b)}	1.79±0.71	1.70±0.68	2.30±0.80 ^{b)}	1.75±0.89	2.00±0.92	2.00±0.96
	5th, 6th grade	2.09±0.89 ^{a)}	2.02±0.79	1.63±0.50	2.25±0.86 ^{b)}	2.00±0.67	2.43±0.66	1.67±0.87
	Other	2.46±0.61 ^{b)}	1.77±0.80	2.14±1.03	1.65±0.71 ^{a)}	1.50±0.58	2.28±0.89	1.69±0.75
F-value(p)		3.457(.017) [*]	.930(.428)	1.706(.172)	6.269(.001) ^{***}	2.122(.126)	.951(.420)	.853(.468)
Total		2.35±0.75	1.87±0.74	1.78±0.70	1.92±0.82	1.69±0.74	2.23±0.86	1.82±0.88

¹⁾ Ranked multiple response(3=1st, 2=2nd, 1=3rd).^{*}p<.05, ^{**}p<.01, ^{***}p<.001²⁾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5).

는 관련 부처의 협조 하에 식생활교육을 하기 위한 시간과 교사를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 외에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식생활교육 요구도 조사를 통해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에 따른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대구지역에 소재한 7개 학교 초등학교 교사 258명을 설문 대상자로 하였으며, 식생활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식생활교육 필요성, 담당자, 교육 시간, 교육 매체, 교육 방법, 효율적인 교육 방안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는 서울, 경기, 대구지역의 7개 초등학교 교사

258명으로 일반적 특성에서 각각 여성(88%), 30대(45%), 기혼자(63.6%), 교직경력 5년 이상-10년 미만(39.9%)이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식생활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교육 활성화 방안 중에 식생활교육 책임자로는 영양교사, 담임교사, 식생활교육 외부 전문가 순으로 나타났고, 식생활교육 실시 시간으로는 식생활관련 교과시간과 식생활교육시간, 급식시간,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효과적인 식생활교육매체와 방법으로는 영상매체와 식생활관련특강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식생활교육 방안으로는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식생활교육 전담교사제 운영', '식생활교육과정안 개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은 식생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생활교육 책임자와 시간에서도 영양교사를 중심으로 전담교사제를 통해 식생활교육 독립 교과를 운영하여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생활교육 책임자로 영양교사가 전체 학생들의 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추가되는 영양교육 업무로 인해서 급식관리 소홀이 우려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따라서 담임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초등학교에서는 영양교사가 담임교사와 협력 하에 식생활교육을 하거나 식생활교육만 전적으로 담당하는 교과전담교사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때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도 함께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 당국에서는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식생활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 담당 교사들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나 연수, 교재, 교구 등의 개발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식생활 관련 교과시간에 주로 식생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실과, 국어, 체육 과목에 식생활 관련 내용이 치중되어 있고 학년별, 분야별로 체계성이 부족하므로 교과 과정의 개정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 속에서 수준별 식생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현재 부족한 식생활 교육시간의 문제점과 지식전달 중심의 간접교육의 문제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농촌진흥청. 2010. 식생활 교육기본계획, pp. 1-42
- Cho EM, Kim MR. 2008. Analysis of educational demands for diet educ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Daegu. J Korean Home Econ Assoc 46(7):7-19
- Choi EY. 2004. Development of nutritional education program for nutrition teacher in elementary school. Masterate thesis, Sookmyung Women 's University. pp 20-66
- Choi MK, Bae YJ, Kim MH, In SJ. 2010. A Survey of the needs of nutrition education based on analysis of eating habits and nutrition knowledge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in Kyung-gi province. J Korean Diet Assoc 16(2):133-145
- Choi YE. 2009. Survey on nutrition education as nutrition teachers of elementary schools in Busan area. Masterate thesis. Silla University. pp 13-88
- Han HY, Kim EK, Park KW. 1997. Effects of nutrition education on nutrition knowledge, food attitude, food habits, food preference and plate waste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served by the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Korean J Nutr 30:1219-1228
- Her ES, Jung SH. 2009. Analysis of dietary status and the demand of child center teachers in Masan. Korean J Food & Nutr 22(2):166-176
- Jang EJ. 2004. Analysis on the horticultural activities of elementary school in Seoul. Masterate thesis, Korea University. pp 14-56
- Jin JH, Lee KJ, Lee YH. 2002. Effects of nutritional education on food behavior of unbalanced diet children. J East Asian Soc Dietary 12:7-14
- Jo MA, Lee KH, Her ES, Kim JA. 2009. A survey on dietary habits in Gyeongnam and the development of the nutrition education curriculum with teacher's guide for obese elementary school children. J Korean Diet Assoc 15:97-112
- Jung KA. 2007. The present state of nutrition education material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 Practical Arts Education 21:107-137
- Jung LH, Oh SH. 2005. A survey of nutrition education statu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Gwangju-Jeonnam. Korean J Human Ecology 8(3):11-22
- Kim HJ. 2008. A Literature review the current status and method of nutrition education of elementary school. Masterate thesis, Ulsan University. pp 14-57
- Kim JY, Sim KH. 2011. The actual conditions and recognition of dietary lif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after execution of the dietary life education support act. Korean J Food & Nutr 24(3):295-305
- Kim SH. 2007. Study on the effect of integrative environmental program focused on horticultural topics of elementary school. Masterate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p 33-55
- Ku BJ, Lee KA. 2000. A Survey on dietary habit and nutritional knowledg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s nutritional education. Korean J Food Culture 15:201-213
- Lee ES. 2007. Effect of horticultural activity on the improvement of dietary Habi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Masterate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p 6-45
- Lee HC. 2002. An Analysi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understanding and the actual condition on eating habits education. Masterate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p 29-72
- Lee KA. 2003. Activity-based nutrition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 Nutr 36:405-417
- Lee KH, Her ES, Woo TJ. 2005. Development of nutrition education textbook and teaching manual in elementary school. J Korean Diet Assoc 11:205-215
- Lim HS. 2007. Introducing LOHAS concept to develop and analysis

- textbook contents of 'vegetable growing'. Masterate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p 26-56
- Min KC, Park YS, Park HW, Lee MH, Shin YC, Cho KB, Rhie KI, Jeang KO, Shin YS, Yoon HS. 2006. Nutrition education performance of elementary school dietitians in North Gyeonggi province. Korean J Food & Nutr 19:183-192
- Paik JJ. 1990. Nutrition knowledge and food habits of elementary teachers. Chuncheon Teachers College 30:85-97
- Park Ja, Chang KJ. 2004. A study 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s status and recognition of nutrition education in Incheon. Korean J Nutr 37(10):928-937
- Shin EK, Shin KH, Kim HH, Park YH, Bae IS, Lee YK. 2006. A survey on the needs of educators, learners and parents for implementing nutrition education by nutrition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s. J Korean Diet Assoc 12(1):89-101
- Son SN. 2008. Effect of the plant propagation program on the children's attitude toward the life respect consciousness. Masterate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p 36-61
- Suh EN. 1998. Analysis of nutrition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s : based up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within inner Seoul. Masterate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pp 26-56
- Yeom CA, Kim HR, Park HR, Kim HS, Kim SA, Park OJ, Shin MK, Son SM. 1995. Parents and principals of elementary school with meal service want sound nutrition education program performed by dietitian. J Korean Diet Assoc 1:89-95
- Yoon HS, Lee KH. 2001. Study on foodservice and nutrition management for elementary schools in Kyungnam and Ulsan - nutrition management. J Korean Diet Assoc 7:237-247